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30일(수)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소상공인 정 책 과	답 당 자	• 소상공인정책팀장 안수경 ☎440-4246 • 담당자 이근왕 ☎440-421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올해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175억으로 확대

- 30일(수), 시-5개 시중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
- 금융기관 출연(120억) 통해 정책자금 지원규모 증액(450억↑) -

인천시가 5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올해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2,175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청에서 인천광역시장, 5개 금융기관 대표,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라 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재원을 각 금융기관이 별도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출연하기로 협의된 재원은 총 120억 원 규모로, 올해 무이자 대출규모를 당초보다 450억 원을 확대(총 2,175억 원)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고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2020년 2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초 1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무(無)이자 경영안정자금』을 2021년 1월부터 지원해 왔다. 단일 특례보증으로 역대 최대인 연 100억 원 이상 출연을 통해 2021년에는 2,800억 원(15,539업체)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2,175억 원(약12,000업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지난 1~2회 보증대출 진행 경과를 보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민들의 자금 수요는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회차(375억 원)는 1월 접수시작 당일 마감됐고, 2회차(600억 원)는 지난 2월에도 4일 만에 마감되는 등 높은 현장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해, 시와 재단은 올해 상반기 대출일정을 1개월씩 앞당겨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1,725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시와 재단은 현장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재원으로 시(市) 출연 외에도, 금융기관의 출연에 대해 지난 2~3월 기간에 걸쳐 5개 시중은행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당초 참여를 약속한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추가로 출연에 참여키로 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금융기관은 시, 재단과 협의해 일정금액을 단독 출연하기로 하며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市)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지원코자 대출 후 3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시와 각 금융기관은 금년도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최종 2,175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내 지원 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무이자 자금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상공인 보증대출을 위해 그동안 협의한 노력이 빛을 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보증재원 출연을 결정해 주신 각 시중은행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재원 출연을 통한 융자 확대,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필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업무협약 개요

참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개최(안)

◇ 코로나 19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책 홍보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중
- 금융기관 별도 출연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2~4단계 출연 + 추가출연)
 - 보증재원을 市 외에도 시중은행에서도 특별 출연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홍보

2

행사계획(안)

- (일시/장소) 2022. 3. 30.(수) 11:00 / 시청 본관(2층, 접견실)
- (내 용)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따른 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
 - *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 1년 무이자, 이후 2년간 1.5%이차보전
- (참 석) 시장님, 신보 이사장, 신한·하나·농협+국민·우리은행(*)

기 관	참석자		비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 현 석	-
신한은행	부행장	박 성 현	당초 동일
하나은행	부행장	성 영 수	
농협은행	부행장	임 동 순	
국민은행	전 무	정 문 철	추가 출연
우리은행	부평영업그룹장	이 범 용	

3 경영안정자금(무이자) 지원 개요

- (사업개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신용등급 무관)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천만원 / 1년 무이자, 2~3년차 1.5%이차보전
- '22년 용자규모(확대) : **총2,175억 원**(당초 1,725)/ 1~5차 실시(5월한)
⇒ 당초 대비 추가출연(국민·우리은행)으로 450억원 증액

※ 추진상황 : 1차 완료(375억원) / 2차 완료(600억원)

	1차(완료)	2차(완료)	3차	4차	5차		계
시 기	1월	2월	3월	4월(미정)	5월(미정)		상반기
용자 규모	375억	600억					총2,175억
출연기관 (출연금)	인천시 (30억)	신한	하나	농협	국민	우리	5개 은행 (총150억)